

創世記



一 天地를 創造하시다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二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三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四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五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六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七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八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九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一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二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三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四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五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六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七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八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十九 ㅅ아 混沌하고 空虛하

二一 二二 二三 二四 二五 二六 二七 二八 二九 三〇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이 되니 第四日이라 ○하느님이 ㅅ아 물에 生物이 繁盛하며 空中  
 에서 가늘나하시고 큰고기와 其他 動物을 二種類대로는 ㅅ아  
 二 二種類대로 創造하시고 보시고 善히 녀이 ㅅ아 福을 주어 줄 ㅅ아  
 三 生育이 繁盛하야 바다에 充滿하며 ㅅ아 들도 ㅅ아에 繁盛하하시다  
 四 二種類대로 ㅅ아 第五日이라 하느님이 ㅅ아 ㅅ아의 生物  
 五 六畜과 昆蟲과 들짐승이 各其 種類대로 나하시니 그대 로 된지  
 六 六畜과 昆蟲과 들짐승이 各其 種類대로 나하시니 그대 로 된지  
 七 ㅅ아 ㅅ아의 種類대로 ㅅ아 ㅅ아를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八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九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一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二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三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四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五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六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七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八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十九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一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二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三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四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五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六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七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八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二十九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一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二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三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四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五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六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七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八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三十九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一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二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三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四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四十五 ㅅ아 ㅅ아의 ㅅ아 ㅅ아를 보시고 善히

六 蔬도나지아니함며耕作을사름도업고안기만을나와은地面을  
 七 적시더라며호와하는님이사름을<sup>九</sup>호로지으시고<sup>八</sup>生氣를그코  
 八 에불어너호사니<sup>七</sup>生靈이된지라며호와하는님이에던東偏에호  
 九 동산을지으샤그지으신사름을두시고그사에보기도호樹木과  
 十 먹기도호果木을나게하시니그中에生命樹와善惡을分別케하  
 十一 는나무도잇더라江이에던에서發源하야동산에대이고그리로  
 十二 브러갈나저에根源이되나第一은비손江이라하월나온사에들  
 十三 니니그사의所産은精金과珍珠와碧玉이오第二는기혼江이라  
 十四 구스온사에들니고第三은헛데겔江이라잇수東偏으로호르  
 十五 고第四는유브라데江이라며호와하는님이그사름을에던동산  
 十六 에두샤農事하며治理하게하시고命하야클은샤디동산의모든  
 十七 實果를먹으되善惡分別케하느냐무의實果는먹지말나먹는날에  
 十八 는죽으리라하시더라○며호와하는님이또클은샤디사름의獨  
 十九 處는너시善치못하시더를爲하야돕는配匹을지으리라하시  
 二十 라며호와하는님이홀은로지으신들츄성파는는새를아담으  
 二十一 로일흠짓게하시려고그압헤너르게하시니各生物의일흠이아  
 二十二 담의닐몫는대로되니라아담이모든六畜파는는새와들츄성의  
 二十三 各其일흠을주었스나아담은돕는配匹이업는지라며호와하  
 二十四 는님이아담을김히잡을게하시고잡은後에그갈비대하나를  
 二十五 取하고삼노代身취우시고그갈비대로女人을만드샤아담답하  
 二十六 디르게하시니아담이클은더이느냐의씩中의씩요살中의살이

二四 라男子의몸에서取하야베었스나女子라稱호리라호은로男子  
 二五 가父母를셔나妻와聯合하야들이홀몸을일우리로다夫婦두사  
 一 몸이더바슨몸이로되붓그러움어덜더라  
 二 여호와하는님의지으시모든生物中에비압이장奸狡하  
 三 지라비압이女人의게닐너클은디하는님이동산의實果를다먹  
 四 지말나시더나女人이닐은디동산에實果를다먹으되그가온다  
 五 잇는나무의實果는먹지도말고든지도말나죽으리라하섯는  
 六 니라비압이클은디決코죽지아니할리라먹는날에너희의눈이보  
 七 아하는님과又치善惡을分別할줄을하는님이아시는나라女人  
 八 이그나무를보니먹음죽을고아름다와智慧가나갓는지라고實  
 九 果를싸먹고그남편의게주니그남편도먹고두사름이다눈이보아  
 十 그몸비손줄을알고無花果나무넙흘여저치마를호며더러너  
 十一 바람이니러날씨에여호와하는님이동산에遊行하시더니아담  
 十二 파그妻가그音聲을듯고동산나무스이에숨어여호와하는님의  
 十三 얼굴을피하거늘여호와하는님이불너클은샤디아담아네가어  
 十四 디잇는나클은디내가여기서主의音聲을듯고배몸이비숨을두  
 十五 러워숨었는이다클은샤디누가너더러버섯다하더나배가먹지  
 十六 말나호實果를먹었는나아담이클은디배게주신女人이實果로  
 十七 배게주기로먹었는이다며호와하는님이女人의게닐은샤디네  
 十八 가엇지이러케하엿는나女人이클은디비압이나를씩임으로써  
 十九 가먹었는이다며호와하는님이비압의게닐은샤디네가이러케

十五 終身토록 후를 먹으리라 배가 너로 女人의 怨讐가 되고 네 后孫도 女人의 后孫과 怨讐가 되게 하야 女人의 后孫은 네 머리를 傷고 너는 그 발꿈치를 傷고라 하시고 女人의 後孫은 네 머리를 傷고

十六 羅자 孕胎하고 生産하야 甚히 괴롭게 하며 所願은 지아비의 게잇고 지아비를 主 管하게 하리라 하시고 아담의 後孫은 지아비의

十七 네가 안희의 말을 웃고 배가 먹지 말나 實果를 먹었은 죽너를 困하야 싸이 詛呪를 밧고 너는 終身토록 受苦하야 먹으라니 싸이

十八 너를 困하야 가시덤불과 영경 카가 나리니 너는 밧히 菜蔬를 먹으 디 흙으로 도로 갈싸서 지삽을 흘너 먹을 거시오 너는 흙에서 밧스

十九 니 곳흙이라 흙으로도 가리라 하시더라 아담이 그 妻를 해와라 하니 이 는 모든 산者의 어미가 됨이라 하여 호와 하는 님이 아담과

二十 그 妻를 爲하야 가 죽으시어 님히시고 흙은 사디 사람의 善惡分 別함이 우리와 같으니 그 손을 들어 生命나 實果를 싸먹고 永生

二十一 할가 하노라 하시고 에던동산에서 茨花며 二肉體의 根本된土 地를 갈게 하시고 그 사람을 次 後에 에던동산 東 偏에 그들을

二十二 파스스로 도는 火焰을 두어 生命樹를 지키게 하시니라 四 아담이 그 妻와 同寢하니 해와 孕胎하야 가인을 나르

二十三 닐은 디어 호와의 도심으로 배가 得男하엿다 하더라 쓰고 아오 아벨을 나흐니 아벨은 羊치는 者가 되고 가인은 農夫가 되엿더니

二十四 그 後에 가인은 土地所産으로 하여 호와 싸드리고 아벨은 문져난 羊

의 고기와 기름으로 하여 호와 싸드린 디어 호와 그 祭物을 眷顧하 시고 가인 외 그 祭物은 眷顧치 아니하시니 가인이 佛鬱하야 顏色

五 이 變하거늘 호와 가인의 後孫은 사디 배가 佛鬱하야 顏色이 變하은 것임이 노 善을 行하면 엿지悅納지 안겠는 나 善을 行치야

六 니 하면 罪가 門에 업드러 엿보느니 너는 防備하라 가인이 그 아오 아벨과 밧혀서 離離하다가 刺 죽어 니어 호와 가인의 後孫은 사

七 디 배 아오 아벨이 어디 잇는 나 곧은 디어 지 못하는 이 다 배가 배아 오를 지히는 者나 잇가 들은 사디 배가 무수 일을 行하엿는 나 배

八 아오의 피가 소리를 發하야 싸으로 브러 배가 呼訴하니 싸이 그 입 을 버러 배 손으로 브러 배 아오의 피를 마사 故로 배가 싸이에서 詛呪

九 를 밧아 밧출가 라도 싸이 너를 爲하야 土力을 버지 아니하리라 배 가 流離漂泊하리라 가인이 여 호와 싸하되 나의 罪罰이 너 무重

十 할야 천될수 업는 이 다 主 오늘 아싸에서 나를 次 버디 主의 밧 출보지 못하게 하시니 배가 流離漂泊하다가 畢竟 마는 者의 게

十一 마지 죽겠는 이 다 여 호와 들은 사디 그러면 가인을 죽이느 者는 罰을 七倍나 밧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게 標를 주사 마는 者의 管

十二 罰을 免케 하시니 가인이 여 호와의 암을 싸나 에던 東 偏에 싸이居하 디라 가인이 妻와 同寢하니 해와 孕胎하야 가인을 나르

十三 城을 싸코 그 아들의 이름으로 城을 일흥하야 에 죽을 나흐니라 가인이 죽은 이 밧을 나코 이 밧은 이후야 엘을 나코 드후야 엘은 드드사 엘

을 나코 드드사 엘은 나매을 나흐니라 나매이 두 妻를 娶하니 나

요한福音

요한의記錄말씀

一 太初에道가잇서하는남과又치계시니道는못하는남이  
 二 시라이道가太初에하는남과又치계심으로萬物이이道로지은  
 四 바되었스니物件이道업시는지은거시나도업는니라生命이  
 五 道에잇스니生命은사물의빛이라빛치어두은디빛혀되어두은  
 六 거시저되지못하더라○하는남의보내신사물이잇스니일홈은  
 七 요한이라디가음은빛을爲하야證據하야모든사물으로써自己를  
 八 因하야다밧게하러함이니요한은이빛치아니오이빛을爲하야  
 九 證據하러은者라各사들의게잇초이는츄밧치世上에는렸는나  
 十 그가世上을지으시고世上에제시되世上이認定치아니하고自  
 十二 己사에와도스百姓이밧자아니하되밧는者는그일홈을밧는者  
 十三 라權勢를주사하는남의子女가되게하시는나이런사물은血氣  
 十四 로난것도아니오情慾으로난것도아니오사물의뜻으로난것도  
 十五 아니오하는남씨로서난者라○道가肉身이되여우리가온디居  
 十六 言야恩惠와眞理가말하되자라우리가榮光을보니아바지의  
 十七 獨生子의榮光이라하요한이이를爲하야證據하야블너글은디  
 十八 卍가前에말하기를내뒤에오시는이가나보다압성겨슨나보다  
 十九 몬져계심이나라하말이이사물을마르침이라우리가다그充滿  
 二十 할디셔밧아恩惠우에恩惠를잇는나律法은모세로말릭암야주

十八 섯스나恩惠와眞理는예수그리스도로말릭암야온거시라本來  
 十九 하는님을본사물이업스되아라지물속에잇는獨生子가나라내  
 二十 섯는니라○요한의證據는이러하니라유대사물이예루살렘에  
 二十一 서祭司長과레위子孫을보내며요한드러무러글은디네가누구  
 二十二 냐하냐요한이숨기지아니하고分明히말하야글은디나느그리  
 二十三 스토도가아니니라썬우르디그리면누구냐말야냐글은디아니  
 二十四 니라썬우르디그先知者냐對答하디그도아니라썬우르디그  
 二十五 러면누구냐우리로우리를보낸사물의對答하게하라네가누  
 二十六 구라하냐냐글은디나느先知者이사야의말과又曠野에서뵈  
 二十七 차는소리라닐넛스티主의길을뚫게하라(사四十二)하엿는니라  
 二十八 하니이사물들은바리새敎人의게셔보낸者라썬우러글은디네  
 二十九 가그리스도도아니오일너야도아니오그先知者도아니면엇지  
 三十 하야洗禮를주는냐요한이對答하디나는물노洗禮를주거니와  
 三十一 言야洗禮를주거니와너희가온디섯스되더화가가지못하도다이는나보다  
 三十二 뒤에오시는者라나는그신들메플기도堪當치못하리라하거니와  
 三十三 일은요단江 건너편벧아니곳요한의洗禮주는곳에잇섯타라○  
 三十四 잇흔날요한이예수自己의게나아오심을보고글은디世上罪  
 三十五 를지고가는하느님의어린羊을보라내가前에말하기를言하사  
 三十六 我내뒤에와도나보다압성겨슨나보다몬져계심이라하거시어  
 三十七 사람을마르침이라나도아지못하엿스나내가와셔물노洗禮를  
 三十八 주는그들이스라엘의게나라내고져할아라하더라요한이또證

三三 據하야 말은 디배가 보나 聖神이 비둘기 貌樣으로 하늘을 노서는 터  
와셔 그 머리 위에 머문지라 나 도 아 자 못을 영스나 나를 보며 머물

三二 에 머무는 거슬 보거든 그가 聖神으로 洗禮 주는 이 인 줄 알 나 후  
시기에 내가 보고 하느님의 아 들 되심을 證據하노라 하더라 ○ 亞

三一 잇 혼 날 요한이 두 弟子와 又 처사다가 예수의 行을 심을 보고 날은  
디 하느님의 어린 羊을 보라 두 弟子가 그 말을 듯고 곳에 수를 좃거

三〇 들에 수 품을 도리쳐 좃는 거슬 보시고 무리 말은 사 두 무어 술 求  
하느나 말은 디 랍비며 어 디 계시오닛 가 하 니 랍 비는 繙譯하면 先

二九 生이라 예수 곧은 사 디와셔 보라 디 회가 와셔 세 신 디를 보고 그 날  
에 又 처居 하 니 卽가 午後 時 소음이라 요한 의 말을 듯고 예수를 좃

二八 是 두 사 물 중에 하나 는 시몬 베드로의 아 요안 드레라 문져 그 兄시  
몬을 차자 보고 날은 디우리가 가서 야를 맞나 다 하 니 예시 야는 繙

二七 譯하면 그리스도라 드리고 예수 씨로 오니 예수 보시 고 말은 사  
디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將次 케라 하 니 라 하 시 니 케라 는

二六 繙譯하야 베프드로 못들이라 라 이 혼 날 예수 갈 날 나로 가 리 하 시  
다가 빌립 을 맞 나 날은 사 디나 를 좃 초라 하 시 니 빌립은 벵 세 다 사

二五 람이 나 안 드레며 베드로와 할 城사 람이라 빌립이 나 다 나 영 을 차  
자 보고 날은 디 모세의 律法에 記錄하 바 와 더 先知者의 記錄하

二四 이를 우리가 맛 맛 스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라 나 다 나 영이  
곧은 디나 사 랫에서 무 음 善을 사 람이 나 겠는 나 빌립이 곧은 디와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四七 서 보라 하 니 라 예수 나 다 나 영의 음을 보시고 무 르 처음은 사 디  
이사 람이 처음으로 이 스라 엘 사 람이 너 姦邪함이 업 도 다 나 다 나 영

四六 이 곧은 디 잇 디 캐 나 를 아 시는 잇 가 예수 곧은 사 디 빌립이 너 를  
부르기 전에 내가 無花果 나무 아래 잇 술 때에 보았 노라 나 다 나 영

四五 이 對答하 니 랍 비며 하 는 님의 아 들이 시오 이 스라 엘 王이 로 소이  
다 예수 곧은 사 디 배가 너를 無花果 나무 아래 서 보았 다 후으로

四四 밋는 나 이 보 다 더 큰 일을 보리라 亞 들은 사 디 眞實도 眞實도 너 회  
의 계 날은 노니 하늘이 열 니 고 하 는 님의 使者가 子우에 오 르라

四三 는 디 랍 말을 보리라  
四二 一 사 후 後에 갈 날 나 가 나 에 婚姻 禮式이 잇 섰는 지라 예수의 아  
머니 도 參預하 고 예수와 그 弟子들 도 講言을 맞 고 샅 더 니 葡萄 酒

四一 가 盡하 매 예수의 어 머니 가 예수 더 리 날은 디 葡萄 酒가 다 하 였 다  
하 니 예수 곧은 사 디 어 머니 더 나 와 무 음 相關이 잇는 잇 가 배

四〇 가 아 졌 나 로 지 못 하 였는 이 다 고 어 머니 가 보 몬 下人 더 리 날은 디  
너 회 의 계 날은 시는 대로 行하 라 하 니 라 그 곳에 유 대 人의 潔禮

三九 를 짜 라 두 세 桶식 담을 돌 항 아 리 여섯이 노 혀는 지라 예수 디 회  
더 리 날은 사 디 항 아 리에 물을 부어 취 우라 하 신 디 항 아 리 아 구 주

三八 지 취 우니 亞 들은 사 디 셔셔 잔 취 맛 혼 사 람의 게 주 라 하 신 디 못 셔  
다 주 니 물이 葡萄 酒가 된 지라 물 셔 온 下人 들은 알 디 잔 취 맛 혼 사

三七 람은 맛 보 오 어 디 셔 잔 지 아 지 못 하 야 新郎을 불 너 날은 디 사 람 마  
다 문져 요 혼 술을 내 여 손이 잘 마 신 後에는 온 술을 내 거 늘 고 디 는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十一 至今까지도 혼을 두었다 하더라 이 일은 예수의 처음 異蹟이라  
 十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와兄弟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  
 十三 가시나 몇칠제시 못하니라 유대인의 逾越節이 가까온지라 예  
 十四 수께서 살넬으로 올라가사 聖殿 안에서 소와 羊과 비둘기가 파는  
 十五 사물들과 돈 밧고는 사물들이 안겼음을 보시고 노신으로 처척을  
 十六 모드사 모든 사물과 소와 羊들을 聖殿에서 내어 쫓으시고 交換하  
 十七 는 사물의 돈을 쫓으시며 牀을 업호시고 비둘기가 파는 사물드러닐  
 十八 으샤 디이 物件을 가져가고 내아 바지의 짐으로 찰스하는 짐을 삼  
 十九 지말나 하시니 弟子들이 聖經 말씀을 생각하니 빌렛스 주지의 殿  
 二十 을爲하여 배모음이 焦急하다(詩六九) 하였더라 유대인이 무려  
 二十一 콜으니 네가 이 일을 행할진대 무슨 表蹟으로 우리의게 보이겠는  
 二十二 노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가 聖殿을 헐나 그리하면 내가 사흘만  
 二十三 이니로 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聖殿은 四十六年만에 지었거  
 二十四 늘네가三日만에 니로 키겠는 노 하더라 예수의 말씀은 聖殿으로  
 二十五 自己 몸을 譬喩하심이니 죽었다가 復活하신 후에 弟子들이 이 말  
 二十六 습을 생각하고 聖經과 예수의 말씀을 믿더라 ○예수께서 逾越節을  
 二十七 當하여 예루살렘에 제 십사며려사 사람이 그 행하신 異蹟을 보고 그  
 二十八 일들을 믿으니 예수는 몸을 디의게 依托하시니 하시니 사물을  
 二十九 다 아심이라 사물의 속모음을 아심으로 누구든지 사물의 일을 드  
 三十 리證據함을 받지 아니 하시더라

一 이라이사 사람이 밤에 와서 예수를 보고 콜으니 디람비여 우리가 先生  
 二 은하는 님씨로 부르시오 신졸하는 이다하는 님이 흥취하지 아니  
 三 하시면 先生의 行하시니 異蹟은 아조사물도 하지 못하니 다 예  
 四 수께서 이르시되 眞實노 眞實노 네게 낄노니 사물이 거둔나 지아  
 五 니 흥면하는 님나라를 보지 못하니라 니코데모가 콜으니 디사물  
 六 이 높은 후에 었더케 거둔나 겠습는 님가 두番어 비희속에 드러갓  
 七 다가 낄수잇는 잇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眞實노 眞實노 네게 낄노  
 八 니 물과 聖神으로 나지 아니 흥면하는 님나라에 드러가 지 못하니  
 九 니 肉身으로 난者는 肉身이오 神으로 난者는 神이니 거둔나 야하  
 十 겠다 하는 말을 奇異히 녀이지 말나라람이 任意로 불매 소리를 드  
 十一 러도 어더서 오더어 터로 가는 지아 지 못하니 聖神으로 난 사물  
 十二 은 님이 려하니라 니코데모가 콜으니 디엇지 이 려할일이잇스리잇  
 十三 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先生이 되며 이런 일을 아지  
 十四 못하니 나 眞實노 眞實노 네게 낄노니 우리는 아는 거슬 말하고  
 十五 본거슬 證據되니 회가 노證據를 받지 아니 하는도 님이世上일  
 十六 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 하거든 음며 하 놀일을 말하면 너희가 잇  
 十七 터케 믿겠는 님하 놀노셔는 러은者 者 맞게 하 놀에 올라 샷던者 가 업  
 十八 스니이노 하 놀에 잇는 人子니라 모세가 曠野에서 비압을 든 것  
 十九 처 人子도 들녀야 하시니 無論 누구든지 디를 믿고永生을 잇게 하  
 二十 리 할이라 하는 님이世上을 사랑하샤 獨生子를 주셨스니 누구면